

한반도 쿠로임대한 불평등협정

기획특집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체결 배경과 그 영향

86년 4월 김세진·이재호영사가 '미국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 반대'를 외치며 산화해 간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두 열사는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반미'가 조국의 민주화에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열사의 뜻을 더욱더 강조해야 할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의 예속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내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변혁운동 내에는 각종의 개방주의적 경향과 사상적 동요가 심각하게 침투하고 있고,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가 될 92-93년 이 바로 몇달 후로 다가온 지금, 미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11월20일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뿐더러 국민적 합의없이, 조인된 예정인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한미관계에 다시 알아보는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된다.

54년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 이어 새로운 체결될 이협정은 지난 85년 17차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철수에 대비하고 한미연합군의 전투력 향상과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각 분야별 지원협정의 체계적 정비와 가용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합의에 그 명분을 두고 있다. 이어 87년 5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협상시작을 합의한 이후 지난 7월31조인되어 바로 몇달후인 11월20일 있을 2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정식 조인될 예정이다. 9개조항과 2개 부속으로 구성된 이협정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알려진 항목에 의하면 남한은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미국의 지원이 있었으며 ◆전국 어디서든 군

점점(훈련)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가마다 그 규정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 미국이 NATO와 맺은 협정-서독의 경우 유사시 파견되는 병력규모를 규정하고 비용분담 역시 명시하고 있다.과는 달리 이번엔 한국과 맺은 협정에는 유사시에 증파되는 미군의 규모와 도착시기 등 구체적인 파견계획의 명시는 없고 남한의 자원의 무만 못박고 있다. 결국 언제든

시재보급계획을 발전시키고 우발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전시소요물자의 사전비축을 준비한다는 명분하에 그 입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었다.) 그럼 미국이 이 협정을 만들고 동맹국에 강요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사정과 변화된 국제정세에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80년 레이건의 등장이후 미국은 경제력을 넘어서 무리한 군사비 지출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낳았으며

美 군비지출 한계... 우방국내 병참지원 강요

한국의 국방예산증액·평시에도 긴장고조 유발시켜

사도로를 내려주어야 하며 ◆부산, 인천 등 주요 항구에 미군함의 출입과 정박을 위한 항만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공공건물을 미군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미군의 요구에 의해 군사장비와 군사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훈련을 해야하며 ◆심지어는 미군전용 산수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해 전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중원군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각종시설과 물자수송및 노후지원 등에 대한 전수국의 지원내용과 규모, 비용분담의 원칙, 이를 위한 평상시의 준비및

지 한국을 접수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는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의 인적·물적자원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한국은 반영구적인 미군의 기지가 되는 것이다. (84년 국회에서 통과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정부가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이미 미국은 82년 제14차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전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으로 무역적자 역시 엄청난 규모여서 기존의 군사전략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변화는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짜여진 군사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은 가상의 적을 소련이 아닌 지역의 패권국, 또는 제3세계의 분열지역으로 삼고 그에 알맞는 군사전략을 짜게 되었다. 즉 대규모의 현지파견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이중기

전국연합의 과제와 전망

"민주정부 수립, 그거 가능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민주정부수립에 회의적이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재 전국연합은 변혁운동의 방향, 특히 전국연합의 성격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과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이견을 안고 있다. 그 하나가 전국연합을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대연합'이라고

전민중의 정치구심이어야 한다

원칙 충실한 조직적 통일 이루어야

통합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 '이제까지 보여준 기회주의적 모습에 비해, 민주당과 크게 다를 게 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중당은 언론에 등장하는 최수민클립이 대중적인 지명도가 낮고, 이번 선거에서 권력 대체세력으로 부상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처럼 마땅하게 지지할 정당 이 없다는 게 이들 사람들 대다수의 한결같은 호소이고 보면, '민주정부 수립, 그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는 기실 '선거해봐야 달라질 게 뭐 있겠느냐'는 정치불신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말하자면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들은 선거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세속에서 오는 12월 전국연합이 출범한다. 그러므로 기존 정치권에서 자신의 대변자, 정치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민중들이 전국연합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운동은 89년 이후 계속된 공안통치속에서 거의 온 몸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그러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성장한 민중운동의 역량은 지난 5월 투쟁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됐다. 비조직 대중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전개되었던 87년 6월 항쟁과는 달리 대중들의 조직적인 참여가 신속하게 이뤄졌고, 투쟁의 양상도 완강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를 이끌 통일적인 지도 구실이 없었기에 또 다시 빼어난 후퇴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민중들에게 있어서 전국연합은 새로운 정치 구심으로 다가서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연합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조직 통일의 수준을 높여내는 일일 것이다. 현

규정하면서도 보수야당세력과 연합을 강조하는 견해다. 이 견해는 현재 우리 운동의 역량으로는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당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당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민주당이 민주대개혁을 약속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면,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훨씬

보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모이지 않았다. 멀리 비속으로 천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롱하고 신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 그런 모습은 불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UN가입을 비롯한 제반 정치 행보에서 이미 보수연합 구도에 공동보조를 취했으며, 소부르조아 해계모니 강화만을 노리는 보수야당과의 연합이란 힘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그 다른 하나다. 이 견해에 따르면 '파소정권과 독점 자본의 권력재편기도, 즉 보수대연합 실현기에도 책기를 박고, 보수야당을 여기서 분리시켜 견인하기 위해서는 파소정권, 보수야당, 민중정권의 정립(鼎立)구도를 파는 것이 92-3년 민중정권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전국연합이 독자적인 강령과 후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보수야당도 민주대연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민중후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주대연합은 결국 보수야당의 세력강화로 귀결될 뿐이 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말꼬리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이란 게 뭐냐'며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없는 건 아니다.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정권에 있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들으며 적이 없다. 여기서 민주정부는 보수 민주당 정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 수개월의 논의를 거쳐 출범하는 전국연합의 운명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조직적인 통일수준을 얼마나 높여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제가 전국연합 대표자나 실무자, 또는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다.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아파할 줄 아는 모든 이의 몫이다. 그랬을 때 전국연합은 전민중의 희망을 끌어담는 정치구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고,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가능성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갈 것이다.

신 경 준

(월간 '길' 편집장)

구할 뿐만 아니라 차츰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세계의 모든 차츰 총치고 있는게 없다. 이를테면 독차, 총차, 오토차, 화차, 긴아차, 백차, 황차 등이다.

우리와 수천년 동안 왕래하며 같은 문화권이었던 중국, 특이하게 사회주의의 체제를 고수하며 광활한 국토 많은 인구가 다양하게 공존하며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이 나라를 돌아보며 사회를 보는 또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연변의조선족·를 조금이나마 찾을수 있어 기뻐했다. 기나긴 여행끝에 울었던 백두산과 비로 인해 못보았던 천지의 황홀경, 꼭 통일을 이루어 가보겠다는 다짐도 새로이 한다.

양 인 수

(기계·2)

독자기고

대학생 중국연수 기행기

개방 혼란기 겪는 '황제의 나라'

1. 중국의 과거와 미래 - 북경 대학과 만리장성, 천안문광장

연수단은 맨 먼저 중국의 미래에 있는 북경대학에 갔다.

1898년 3월에 창립되고 29개의 학과에 총 1만2천5백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북경대는 5·4 운동 진원지로서 중국혁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모택동, 중국 신문화운동의 중심 인물이며 문학가, 사상가인 노신 등이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직원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기원전 5세기 이후 북방의 흉노침입에 대비해 쌓기 시작한 여러 지방의 성벽을 진의 시황제가 연결을 시작해 마치 그가 축조를 시작한 것처럼 와전되었으며 그 후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교락을 함께해왔던 만리장성. 규모는 적

도 길이의 1/6이나 되며 달에서도 볼 수 있는 유일한인공물이 되었다.

다음날은 '북경제일선반' 공장에 갔다. 발달된 중공업 분야의 단면인 각종 선반과 자동공작기 계통을 둘러 보았다. 가늘은 여성들이 육중한 기계를 숙련된 손놀림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간혹 공장의 벽에는 색보필로 그린 세련되게 웃을 입은 모델이 그려진 철판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벽보판을 참고해 웃을 입으면 좋다는 일종의 광고라고 안내자가 가르쳐 주었다. 국영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평균 1백50-2백원의 월급을 받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15-20명 규모의 주택(APT)을 공급 받는다고 한다. 식료품, 쌀 등은 월급에 비해 쌀 편이고, 주택관리비 역시 부담은 되지 않으며, 남자는 55세, 여자는 50세 이후의 노후를 보장받는

다고 한다. 특히 노동시간은 8시간이 엄격히 지켜지며 퇴근 시간이 되면 일을 하다가도 집에 간다고 한다.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느낌

은 선반 공장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인민의 군대가 겨는 총부리에 세계가 놀랐던 6·4사태의 천안문광장. 2년이 지난후 그날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천안문광장 주변은 인민영웅기념비를 중심으로 모주석기념당, 중국혁명역사박물관, 인민대회당이 위치하고 있다. 천안문광장은 1백만명 이상의 군중집회를 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천안문은 자금성의 남쪽쪽 정문으로 문루위에는 중화인민중화국의 국장이 장식되어 있고 중앙의 문에는 광장을 지켜 보느듯 모택동상이 걸려 있다. 광장의 중앙에는 높이 38m의 인민영웅기념비가 의연히 서 있다.

오후의 자유시간에는 백화점, 시장, 서점 등을 기웃거리며 중국인민들의 생활을 좀더 알고자 노력했다. 책들은 마치 60년대에 발행되어 수년간 묵은 듯 질이 좋지 않았고 인민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의 생활용품 역시 소비재에선 뒤떨어진 중국의 모습을 잘

감할 수 있었다.

2. 아, 민족의 영산 백두산

연길에서 백두산 일구인 이도 백화까지는 약 250킬로미터로 7-8시간을 달려야 한다. 도중에 긴차, 흥남도 장군들이 일본군과 싸웠던 청진리 대전의 현장을 지나치게 됐다. 말로만 들던 역사적의 현장이었기에 계곡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으려 애썼다. 여기서 안 사실

이지만 조선족들은 양림장군에 대해 자세히 배운다고 한다. 그 역시 청산리를 무대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공산주의자였다는 이유로 우리의 역사에서는 지워져 버린 듯했다. 김좌진 장군, 그리고 양림장군 그들은 그가 공산주의자인 민족주의자이건간에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자랑스런 선조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백두산을 오르는 날은 일정을 당기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70여개의 물기둥을 이루며 바람에 날리는 장백폭포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흡사했다. 바람

에 폭포수가 부연 안개비로 변해 신비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백두산은 해발 2천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13개 인데 중국에 속하는 것은 백운봉을 비롯해 6개며 북한에는 백두산 최고봉인 장군봉을 비롯 7개가 속한다.

얼마나 보고싶고 오르고 싶었던가, 권고 뛰어보고 흠뻑 만져 보았다. 눈우가 짙게 드리워진 백두산, 이슬비가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천지가 어디에 있는지

자동차한국의 자부심을 펼쳐갈 마북리연구소 -

우리의 손으로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든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마북리연구소의 불빛 -

첨단 자동차기술을 향한 우리의 꿈이 영원하듯 오늘도 마북리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북리연구소의 500여 연구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이겨내며 국내 최초로 알파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독자개발에 성공, 자동차한국의 긍지를 드높였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꿈의 자동차' 시대를 위해 자동차의 신기술을 펼쳐가는 마북리연구소 사람들 -

이들 모두의 노력들이 자구한 곳곳에 자동차한국의 자부심을 펼쳐가는 원동력이며 세계 자동차무대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미래의 첨단 자동차기술은 우리 손으로 -

세계 자동차무대를 이끌어 갈 이상적인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전기, 수소 등 배기가스가 없는 대체연료 개발, 엔진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연소, 유동의 연구,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전자제어기술,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초경량 소재의 연구 등 내일의 첨단 자동차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앞서가는 자동차기술을 펼쳐갈 것입니다.

꿈과 패기의 젊음은 영원하다.

다음 세기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펼쳐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꿈과 패기가 있는 젊음은 영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젊은 그대들의 힘찬 가슴이 세계 제1의 자동차한국을 빛낼 밑거름임을 믿으며 좋은 차의 개발과 공급으로 이땅에 풍요로운 자동차문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오늘의 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⑥